

원두값 급등에 커피가격 '들썩'... 동네카페 '시름'

올들어 로부스타 품종 37% 올라
도매상 원두 500g에 400원 인상
커피 프랜차이즈 판매가격 줄인상
자영업자 "가격 올려야하나 고민"

"저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는 저렴하게 판매해야만 손님이 오는데 최근 들어 거래처에서 원두 소매값을 올린다는 말이 있어 불안합니다."

광주 동구 학원가에서 소규모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김모(52)씨는 요즘 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을 올릴지 고민 중이다. 최근 급격히 오른 원두 가격에 도매상들이 하나둘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가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직 거래처에서 원두 가격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올린다는 소문이 돈

다. 개인 카페이다 보니 저렴한 가격에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우윳값도 이미 많이 올라 여기에 원두값까지 오르면 매우 힘들어진다"며 "주변에 워낙 카페가 많다 보니 가격을 올리게 되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고민된다.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 가격을 올릴지 결정할 예정이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시원한 커피 수요가 늘어나는 여름철이 다가오지만 카페 자영업자들은 비상이다. 이상기후로 커피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원두값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며 도·소매상들이 원두 가격을 올린 까닭이다.

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런던국제금융 선물거래소(LIFFE) 기준 로부스타 원두 1톤 가격은 올해 평균 3427.19달러로 지난해(2492.82달러) 대비 37.48% 급증했다. 기존 1000달러~2000달러 사이

를 유지하던 로부스타 가격은 올해 1월 3236.5달러로 치솟으며 전년동월(1962.86달러) 대비 무려 64.89% 뛰었다. 원두값은 꾸준히 증가 곡선을 그리며 지난 4월에는 3938.86달러 기록하며 16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원두가격 상승은 세계 로부스타 공급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베트남에 가뭄이 지속되면서 원두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로부스타 원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인스턴트 커피, 에스프레소 등 다양한 커피 원두에 혼합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국내 자영업자들에 타격이 큰 편이다.

광주·전남 지역 카페에 원두를 제공하는 도매업체 관계자 최모(49)씨는 "국제 원두 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원두값도 올랐다. 모든 품종 원두가 일제히 올랐지만 가장 심한 것은 로부스타 품종으로 지난

4월 초부터 500g 한 봉지 가격이 400원이 나 뛰어올랐다"며 "소매가를 올리고 싶지만, 거래처 반발이 있으리라 예상해 올해를 지나고 내년부터 1000원 정도 올릴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원두가격 상승은 개인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외에도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들에게도 걱정거리다. 프랜차이즈 카페의 경우 대량으로 원두를 구매해 어느 정도 소비자 가격 방어가 가능하지만, 판매가격 조정은 온전히 본사의 결정이라 원두 납품가는 올랐는데 가격은 그대로여서 가맹점주 사이 불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북구와 남구에서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 박모(32)씨는 "지나해 본사에서 원두값을 올렸지만 소비자 판매가는 조정해 주지 않아 상황이 어렵다"며 "올해 원두값이 치솟으면서 본사에서 또 납품가를 올

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작년같이 판매가를 동결하게 되면 먹고 살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이미 가격을 올린 커피 브랜드들도 있다.

커피 프랜차이즈인 하삼동커피, 더벤티, 커피빈 등이 원두, 설량 등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임대료 및 인건비 영향으로 가격 인상을 감행했다.

하삼동커피는 지난 1일부터 카페라떼 등 음료 6종의 가격을 200원씩 올렸다. 더벤티도 지난달 22일부터 카페라떼 등 음료 7종의 가격을 200원~500원 올렸다. 커피빈은 올해 초 카페라떼 등 유유가 포함된 음료의 가격을 200원씩 인상했으며 지난달 17일부터는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파우치 음료 가격도 100원씩 인상됐다.

박소영 기자 soyeong.park@jnilbo.com



삼성, 국내 최대 초프리미엄 TV 공개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크기인 114형 마이크로 LED를 공개하고, 초프리미엄 TV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마이크로 LED는 마이크로미터(μm) 단위의 LED가 백라이트나 컬러필터 없이 스스로 빛과 색을 내 최상의 화질을 구현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몰입감 있는 시청 경험을 선사한다. 114형 마이크로 LED의 출고가는 1억8000만원이며, 삼성스토어 현대 판교점에서 만나 볼 수 있다.

삼성전자 제공

'더 시너지 첨단' 서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

광주디자인진흥원, 10일부터
도자·섬유 20여개 공방 참여

멋과 솜씨가 어우러진 수공예품 팝업스토어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광주 첨단지구 시리단길에서 열린다.

7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쌍암동 시리단길 '더 시너지 첨단'에서 '2024 상반기 우수공예품 팝업스토어'를 마련한다.

해마다 상·하반기에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팝업스토어는 지역의 공예문화상품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우수상품의 판로 지원을 통해 공예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진행된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20여개 수공예공방이 참여해 △도자 △섬유 △가죽 △레진 △금속 △목공예 분야의 다양한 악세서리, 생활용품, 잡화류 등을 전시·판매한다.

박소영 기자

기아, '더 기아 EV3' 티저 이미지·영상 공개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더 기아 EV3(The Kia EV3, 이하 EV3)'의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7일 최초로 공개했다.

EV3는 2021년 기아 첫 E-GMP 기반 전기차 EV6와 2023년 대형 전동화 플래그십 SUV인 EV9에 이은 기아의 세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끌고 EV 라인업을 확장하며, 전동화 모빌리티 시대의 새로운 고객 경험을 선

사할 소형 SUV EV이다.

EV3는 기아 고유의 디자인 철학 '오퍼핏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에 기반해 강인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며 독창적인 느낌을 전달한다.

전면부는 미래 지향적 느낌의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수직형 헤드램프가 견고하고 대담한 인상을 보여준다.

측면부는 낮고 길게 뻗어 나간 역동적인 루프 라인이 차체와 조화를 이루며 미

래지향적인 느낌을 연출한다.

후면부는 불륨감 있는 테일게이트 디자인이 넓은 공간감을 자아내는 동시에 바람이 뻗어 나가는 듯한 형상의 테일램프가 역동성을 더한다.

또한 기아는 티저 이미지와 함께 공개한 티저 영상을 통해 EV3의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 요소가 강조된 감각적인 실루엣을 공개했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레이싱팀 'SL모터스포츠' 후원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비 장착

금호타이어가 현대N페스티벌 eN1 클래스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 'SL모터스포츠'와 팀 타이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SL모터스포츠는 올 시즌부터 '금호-SL모터스포츠'를 공식 팀명으로 사용한다.

eN1 클래스는 국내 최대 규모의 원메이크(단일 차종) 레이싱인 '현대 N 페스티벌'의 전기차 레이스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N eN1 컵카를 사용한다. 아이오닉 5 N eN1 컵카는 최고 출력 478kW(650마력)의 전·후륜 모터와 84.0kWh의 고출력 배터리 등 첨단 전동화 기술을 집약해 주행 성능을 극대화하고 서킷 주행



을 위한 여러 요소를 추가해 제작한 경주차다.

SL모터스포츠는 금호타이어가 지난 2014년 창단한 레이싱팀이자 지난해까지 엑스타 레이싱팀으로 CJ슈퍼레이스슈퍼

6000 클래스에 출전했다. 지난해 드라이버 및 팀 통합 챔피언 타이틀을 석권하며 대한민국 대표 레이싱팀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SL모터스포츠는 오는 11~12일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국내 첫 전기차 레이스인 eN1 클래스의 아이오닉 5 N eN1 컵카에 금호타이어 전기차 전용 타이어 이노비(EnnoV)를 장착한다. 이노비는 금호타이어의 최첨단 기술이 함축된 전기차 전용 브랜드로 EV 전용 컴파운드를 사용해 고속 주행 중에도 탁월한 접지력과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을 제공하며 전기차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최권범 기자

금감원 Q&A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에 대한 미숙지 등에 기인하는 경미한 법규 위반이 반복·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주요 위반사례를 안내해 반복적 법규위반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기업 지배권 변동 가능성(예: 적대적 M&A)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위해 상장사의 의결권 관련 증권(주식, 전환사채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가 관련 증권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이를 적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위반사례 주의사항

문 甲은 2023년 2월3일 상장사 A사가 발행한 CB(발행주식 등 총수의 10% 상당)를 신규 취득했으나 대량보유(신규)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3년 6월1일 전환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한 시점에 대량보유(신규) 사실을 보고해 법을 위반했다.

답 상장사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발행주식 등 총수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하며, 보고기한 내에 보

고해야 한다. 위 사례에서는 전환사채 취득일(2023년 2월3일)에 대량보유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문 상장사 A사의 최대주주 甲(지분율 51%)은 2023년 1월10일 쌍방 특별관계자인 乙이 A사 주식을 신규 취득(0.6%)했음에도 대량보유(변동)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3년 3월28일 본인(甲)보유주식 증가(0.9%) 시점에 이를 합산(0.6%+0.9%)하여 보고해 법을 위반했다.

답 쌍방 특별관계자(甲의 입장에서 甲도 乙의 입장에서)도 상호간 특별관

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추가·제외는 1% 이내 변동이더라도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나 일방 특별관계자(甲의 입장에서 乙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나, 乙의 입장에서 甲이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제외는 합산 보유지분율이 직전보고 대비 1% 이상 변동 시 대량보유(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한다.

문 상장사 A의 주주인 甲(3%)과 乙(2%)은 민법상 조합인 X투자조합을 설립해(甲 60%, 乙 40% 출자) 상장사 A의 주식 10%를 추가 취득했으나, 甲과 乙은 대량보고시 각각 본인 보유분에 해당하는 9%(3+10*0.6), 6%(2+10*

0.4)만을 보유지분으로 보고해 법을 위반했다.

답 민법상 조합을 통해 상장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각 조합원은 상호간 공동보유 관계에 따른 특별관계자가 된다. 대표보고자 1인이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는 경우 조합을 통한 지분뿐 아니라 전체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지분을 포함해 보고해야 하며, 각 보고의무자(조합원)가 개별적으로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더라도 특별관계자(공동보유관계)인 他조합원의 개별 보유지분을 모두 합산해 보고해야 한다. 출처: <http://www.fss.or.kr>

금감원 광주전남지원·1332